



# 전후면 동시인쇄 가능한 라벨인쇄기 개발로 세계시장 노크

**세계** 최초 전·후면 동시 인쇄가 가능한 라벨기(BSR30)를 개발한 업체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 10년간 라벨인쇄기를 전문적으로 제조하고 있는 방성기계(대표 장완섭)다. 이 회사는 직원 20명 규모의 중견 기업이지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산인쇄기기 생산업체.

세계 최초라는 의미는 곧 작업자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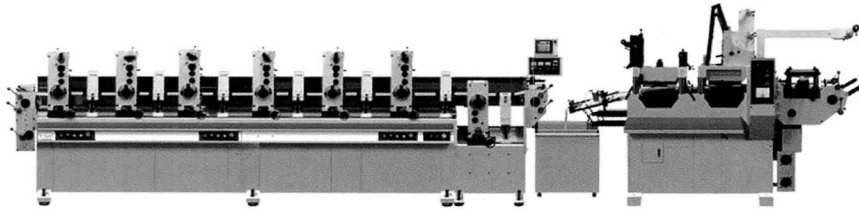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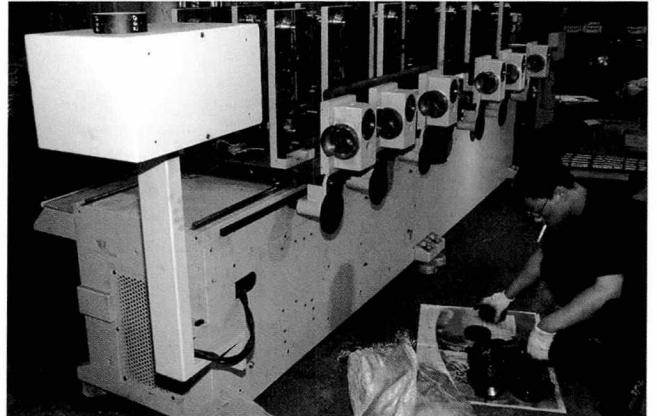
소비자의 만족도를 동시에 끌어올렸다는 호평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순수한 국산 기술로 개발됐다는 것이 고무적이다.

장완섭 사장은 이에 대해 “우리 기술력은 결코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러한 방성의 힘은 바로 질적으로 향상된 국산화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는 것에 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겪은 직후

에도 방성은 순이익금의 30%를 꾸준히 R&D(기술 개발)에 투자했다. 피드백 시스템을 철저하게 적용한 것이다. 방성의 투자는 협력업체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진다.

핵심 기계 부품을 그대로 양도해 언제 어디에서 생산을 해도 질적인 면에서 전혀 차이가 없는 방성의 라벨인쇄기가 생산된다. 그만큼 치밀하고 꼼꼼하다.



▲라벨인쇄기(BSR30)

- 최대원단지폭 : 310mm
- 인쇄면적 : 300×270mm
- 인쇄송출 : 270mm
- 인쇄속도 : 180Rpm
- 주전동기 : 5.5Kw
- UV건조기 : 20Kw
- 기계크기 : 7745×1170×1765
- 전원 : 3φ 220V/380V 60/50Hz
- 기계중량 : 9500Kg

이를 바탕으로 방성은 현재 미국·중국·동남아를 넘어 전 세계로 수출 판로를 넓혀 가고 있다. 방성이 개발에 성공한 원색 라벨인쇄기(BSR30)는 국내 인쇄 기술력의 결정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설계, 제작, 시공, 판매 등 어느 분야에도 국산 기술력이 배제된 곳이 없기 때문이다.

내수 경기가 불황을 타고 있지만 우수한 외국 기술에 맞서 가격과 품질면에서 월등한 상승곡선을 타고 있는 방성기계를 들여다봤다.

세계 최초의 라벨인쇄기(BSR30)

**BSR** 30은 간헐식 로타리 라벨 인쇄기로 방성기계가 세계 최초로 개발에 성공했다. 이 제품은 소비자 기호와 인쇄 시장 흐름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소량 다품종'을 그대로 반영했다. 전·후면 등

시 다발적인 인쇄가 가능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파생되는 효과는 원가절감과 시간, 비용절감으로 나타난다. 또한 라미네이팅·톱슨·펀칭 등 다양한 공정 처리가 일괄적으로 가능해 반복되는 작업이 없다. 따라서 작업 능률이 올라가 인력 낭비를 줄일 수 있다.

BSR30은 인쇄부에 반복 작업도 가능해 고품질의 다색 인쇄가 가능하다. 이는 탄력적인 운영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작업자와 소비자의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킴은 물론 비용, 시간 절감에도 월등히 외국 제품을 앞섰다는 평을 받고 있다. 2000년 국제인쇄산업전시회에 첫 선을 보인 BSR30의 또 다른 특징은 전략형 선진 모델이라는 것이다. 카본이 없는 메인 모터(인버터)를 사용해 불필요한 전기를 막고 소음을 최대한 줄였으며 철저한 규격, 표준화를 통한 과학적인 시스템이 적용됐다. 또 최소의 공간에서 최대

(310mm)의 원단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형·규격화를 이뤘다. 기계 본체는 작업자의 시선이 한눈에 닿을 수 있도록 삼각법 원리로 설계돼 실용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갖췄다.

방성의 기술을 전 세계로

**우리**의 시장은 국내가 아닌 세계다.

올해 방성이 내건 캐치프레이즈다. 방성의 기술력은 내수 시장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다. 회사측은 현재 전체 생산 물량의 30%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수출 규모를 향후 50%대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라벨인쇄기에 회사의 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입, 세계 시장에서 방성의 이미지를 굳힌다는 계획이다. 단일 품목으로 승부를 건다는 청사진이다. 방성은 부피를 강조한 양적 성장보다는

# 매출 30% 이상을 기술개발에 재투자

차한잔 - 장완섭 사장

## “국산화는 국가 경쟁력과 직결”



1993년 왕십리에 뿌리를 내리고 국산 인쇄기기의 선두 주자로 매진해 온 장완섭(45) 방성기계 사장의 말이다. 섬유 기계업종에서 기술인의 길을 걸어오다 지난 1987년 해동기계에서 인쇄업종과 인연을 맺은 그의 인생철학은 바로 신뢰다. 자본과 달리 한번

잃어버린 신뢰는 다시 회복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는 열변을 토한다.

그의 신뢰는 회사 내에서도 그대로 이어져 20여명의 직원들과 격이 없는 의사소통을 나눈다. 이는 작업의 능력과 더불어 직원 상호간에 연결고리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준다. 수직 구조가 아닌 수평적인 경영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그는 독단적인 경영이 우수한 인재들과의 의사 소통 단절을 의미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첨단 기술개발이라는 외길 인생에 대한 질문에 그는 “내가 걸어온 길은 인쇄다. 향후 전진하는 길 또한 다를 바가 없다. 하지만 가장 안타까운 것은 외국 제품에 대한 기존의 이미지를 깨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한다. 특히 장 사장은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쇄기계 개발이 걸음마 단계라는 인식을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외제라고 해서 꼭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의식을 버려야 하고 시기가 어려울수록 국내 기술 산업에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고향은 전북 남원. 군산 서해공대 기계공학과(79학번)를 졸업했다.

내실있는 경영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수출이 우선이다. 이를 방증이라도 하듯 2000년부터 태국 등 동남아를 비롯해 중남미까지 전 세계적인 영업망 구축에 성공했다. 현재 인도와 중국에도 현지 법인과의 긴밀한 접촉을 통해 보급률을 확보해 가고 있다.

장 사장은 이에 대해 “단일 품목에 의한 집중적인 전략으로 승부를 걸 계획”이라며 “수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가 기본이다”고 말했다. 기업대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간의 교류는 무엇보다도 기술력이 바탕이 된 믿음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수한 기술력은 유·무형의 투자

**방성**의 매출은 30% 이상이 기술개발 등을 통한 재투자로 이어진다. 설계, 제작, 시공의 든든한 구심점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방성의 힘은 간헐식과 풀 로터리 방식의 장점을 최대한 충족한 ‘라벨인쇄기의 소비자 만족도’라는 답안을 도출해 낸다.

이같은 배경에는 직원들에 대한 아낌없는 무형의 투자도 한 몫한다. 자율성이다. 무역부와 기술부 파트로 나눠 철저한 업무 분담을 통해 직원 개개인의 전문 분야를 확보해 준다.

운영 상황에 대해 장 사장은 “시장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려면 철저한 자율성을 보장해 줘야 한다”라며 “이 원리를 최대한 접목시켜 직원들의 장점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은 내 역할이다”고 밝혔다. 또한 방성은 최근 인쇄 관련 용어의 통합적인 작업에도 역량을 모으고 있다. 도무송이나 옵셋 같은 정형화되지 않은 단어를 한데 모아 집대성할 계획이다.

장 사장은 “무형의 투자도 인쇄업이 발전하는 데 많은 밑받침이 돼야 한다”며 “지금부터 미래의 산업으로 키워나가는 데 인쇄인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장 기초적인 것이 흔들린다면 인쇄 산업 전반에 반드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홍일 기자〉